

# 2017 노동운동포럼

## 《너에겐 노조가 필요해》 북콘서트 녹취록

2017.8.19.(토)

### 소개

사회자(사): 《너에겐 노조가 필요해》 북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진보연대 황수진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노조가 필요해라는 책을 다들 보셨나요 오신 분들은? 1권까지 나왔는데요, 2015년 2월부터 월간 <오늘보다>에 실린 ‘노조할 권리’와 ‘단결툰’을 묶은 책입니다. 12개 단위 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노조 하기가 힘든 사회잖아요. 만들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든 사회지만. 왜 노조를 하고 있는지, 노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담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노동자운동이 많은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분들을 만나서, 그런 고민들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이 실려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 책이 나온 후 오늘보다에 인터뷰를 하신 4분을 모셨습니다. 인기가 좋으신 4분을 모셨고요. 한 분씩 한 시간 반씩 드려도 모자라지 않으신 분들인데, 4분을 한 번에 모시고 한 시간 반을 배정하다 보니 할 얘기가,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알차게 달려보려고 하고요. 이 4분의 인터뷰는 나눠드린 자료집에 실려 있고요, 인터뷰는 미리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 실리지 않은 얘기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더 날 것의 이야기,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책을 보신 분들도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이따가 청중 질문 시간이 있는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한 분씩 소개드릴게요. 라디오스타 보면 MC가 게스트를 소개해드리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봤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공공의료 지키는 선봉에 서서 투쟁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 분회 분회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의료연대 서울지부 사무국장으로 계시고요. 이 분의 수많은 연설을 듣고 입덕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팬이에요. 걸크러쉬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신데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득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박경득(박): 반갑습니다. 박경득입니다. 일단 토크콘서트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내가 노동조합 진짜 쉽고 편하게 하고 있구나. 나 힘들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고, 진짜 좋은 환경에서 노조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오늘 북 콘서트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분회장 임기는 끝이 났고 올 해 1월 1일부터 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더 진짜 룰 없는 게임에 투쟁의 현장을 보게 돼서. 분회장 하던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고 있고요. 최대한 재밌는 얘기를 재밌게 해보고 싶은데, 잘 못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단결툰에서 뽀뽀이 브라더스로 일주일에 한 번 부산 촛불에서 노래를 하셨다고 얘기가 실려서, 오늘도 혹시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안전·청년·부산을 위한 파업, 부산지하철 노조가 2016년 파업에 붙인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멋지지 않아요? 직접 소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이): 반갑습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 이의용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북 콘서트에 초대를 받으면서, 저도 제 얘기가 실릴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을 많이들 볼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지금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다 노조를 만들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사: 3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자주 보는 분인데요, 촛불 이후에 삼성에서 노조가 계속 생기고 있더라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웰스토리, 최근 에스원까지 생겼는데. 아마 이 분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촛불 이후에 이렇게 노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안 좋은 일을 당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직접 소개해주세요.

정찬희(정):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등포센터에서 근무를 했던 정찬희라고 합니다. 서비스지회에서는 대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17년 6월 15일자로 해고돼서, 해고 투쟁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 지노위에서 저서, 마음이 아프지만 웃으면서 중노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진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단결툰에서 방금 튀어나오신 것처럼 머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올 해 2월에 탄생한 따끈따끈한 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악마의 일터에서 조합원 평균 33세의 젊은 노조가 탄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샘(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 지회, 나름 여성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한샘입니다. 저도 앞에 분들과 마찬가지로, 질문 하면서 하기 위해서 멘트를 살짝 줄여볼까 하거든요. 그 때 더 재미난 얘기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개별질문

사: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30분씩 정도 한 분씩 미리 준비한 질문을 얘기 나눠보고요,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박경득 사무국장님께 제가 팬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만나서 걸크러쉬라고 불리는 거 알고 계세요라고 물었더니, 그거 다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분이신지 궁금

해서 듣고 싶은데, 원래 어떤 사람이셨어요?

박: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 열심히 살고, 혼내고 그럴 것 같아요~

박: 저는 날라리처럼 잘 놀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학 졸업 전까지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열심히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욕심도 없었고, 흘러가는 대로 뒤도 된다 주의였기 때문에. 누구를 혼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도 친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서운하다 이런 게 있어야 싸울 텐데. 살면서 서운한 적도 없고, 화가 난 적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공부도 악착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대충 수업시간에 듣는 정도였고. 악착같은 면은 없었는데, 노는 것을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심한 장난을 치고 이런 것은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야자를 하잖아요, 야간에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학교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불을 끄고 도망가면 애들이 좋아해요. 한두 반씩 불을 끄고 도망가다가 성이 안 차서, 두꺼비 집을 내려서 학교가 남녀 공학인데 전 학교가 불이 나간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나갔는지 빨리 못 찾아서, 그 날 야자를 안 하고 집에 갔어요. 다음날 뒤집어졌죠. 파업 비슷한 건가요? 그런 일 있어도, 선생님이 혼내도 별로 개의치 않고. 노조를 하며 많이 바뀌었죠. 화도 나고, 애착도 생기고. 그 이전에 없던, 엄청나게 다양한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됐고. 욕심이나, 세상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아까 얘기하신 모습들은 만들어진 게 맞고요, 근데 이게 만들어져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깥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 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노조의 대표나, 대표가 아니더라도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반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다가가려면 만들어진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고. 일부러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와서 느끼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 현장에서 일하실 때는 임상 병리사로 일하실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시기도 하고 그랬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조 활동하시면서 병원에 대한 애착도 생기시고, 세상에 대한 애착도 노조 하시면서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작년에 있던 백남기 농민 투쟁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박: 제가 임상병리사인데, 임상병리사는 환자를 못 만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임상병리사 일하는 것을. 병원에 숨겨져서 검사실에서 환자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혈액, 소변, 대변, 골수, 머리카락 모든 그러한 검체를 가지고 검사해서 결과만 내보내는 사람이거든요. 하루 종일 검사실 안에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나면 한 번 시계를 보고 다음에 시계를 보면 20분 가 있어서, 운적도 있어요, 일하다가. 너무 시간이 안 가서. 그러다가 노

조 활동하게 됐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운적도 있어요. 언제 느꼈다면, 단풍을 보고 운적이 있어요. 봄 다음에 여름이라는 계절을 못 느끼고 가을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올해가 봄, 여름 다 지나갔어’에 단풍을 보고 너무 충격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검사실에서 시계 보며 울던 것을 그것을 그 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그렇게 일하는 게 힘들었는지를. 이제 와서 굳이 끼워 맞춰보자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소외죠. 내가 하는 일이 환자에게 어떻게 가는지,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이유... 노조 활동 통해서 백남기 어르신 건은, 제가 노조 몇 년 하는 중에 손가락 3번째 안에 드는 큰 건이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과 같이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병원 앞에서 1년 동안 투쟁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고쳐지지 않아서 그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저는 분회장 끝날 때 너무 좋았고, 다 이루었노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한 것보다 투쟁성과가 좋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진단서 고쳐지 못했다는 게 가장 한으로 남았거든요. 고쳐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투쟁은 저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모든 조합원들이 진단서 고쳐진 날, 정말 파업 합의했던 것 이상으로 좋아했어요. 진단서 고쳐진 것을 보고 온갖 특방, 텔방, 그리고 찾아와서 고쳐졌다고 좋아했거든요. 마치 합의날 잔치하듯이. 굉장히 큰 경험이었죠.

사: <오늘보다>에 실린 인터뷰를 보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연속으로 파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조합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토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탄탄한 것 같다고 2가지를 말씀해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어요.

박: 재밌게 대답하기 어렵네요. 4년 연속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에서 하는 교육 준비를 제가 하다보니까 거기 나오기도 하는데. 노동운동 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만 꼽으면 뭐일 것 같으세요?

(플로어: 말빨, 희생정신, 일관성, 신뢰.)

박: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저도 이 답을 생각 못 했어요. 진정성, 인성, 공감능력을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노조를 믿지 못하면 이 살벌한 세상에. 내가 저거 같이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는 내가 저 사람 못 믿으면 못 할 것 같아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노조를 조합원들이 믿어줬다는 것이죠.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믿어줬기 때문에 파업하자고 할 때 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두 번 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긴 시간 쌓여온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됐고,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욕도 먹고.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사회진보연대 앞에 강좌도 들었는데. 김태훈 동지가 한 번 2015년 파업하고 가합의 안이 나왔을 때 조합원들 설명하는, 파업 조합원들이 강당에 다 모여 있고 설명을 했는데. 그 날 왔는데, 끝나고 나서 그 날 하루 종일

병원 제시안을 얘기하고 설명 듣는 게, 조합원 몇 백 명이니 한 번에 안 되고 4~5번을 했죠. 하는데, 난리가 났죠. 이 안 안 좋다. 제가 분회장으로서 설명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과 비판 이런 걸 하루 종일 했고,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뒤에서 집행부가 합의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아요. 욕도 하고. 이렇게 파업 조합원이랑 직접... 옛날 고대 토론 자리처럼 아무나 손들고 얘기하고, 분회장 잡아먹을 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동지들이 분회장 저렇게 욕먹어서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했는데, 그 때 굉장히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욕하고, 진짜 강당에서 싸우듯이 하고 나서 파업에 합의했는데. 조합원들이 그 합의에 불만 갖고 탈퇴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 통해서 믿음이 싹 트는 것 같아요. 이 집행부 욕할 수도 있고, 이 집행부는 욕먹어도 당당히 나와서 얘기한다. 그 과정들을 해마다 해왔고. 사측과 얘기하는 교섭 장면, 회사랑 직접 얘기하는 자리는 조합원에게 다 얘기 못할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오픈했어요. 모든 조합원이 와서 교섭 보고, 오늘 처음 된 대의원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저희가 생중계까지 몰래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교섭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예 전 세계에 광고를 하시죠 하면서. 회사의 경영 내용을 얘기하는 교섭 자리를 어떻게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전 세계에 올리냐? 전 세계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그래서 다음으로 바꿨어요. 그러니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파업 중에 교섭하는데 다 못 들어오잖아요. 몰래 숨겨갔죠. 카메라를 몰래 숨겨가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강당에서 생중계로 틀었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야구 축구보다 재밌고, 병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강당 큰 스크린에 영화처럼. 병원에서 제일 큰 스크린에, 몇 백 명이 들어가는. 거기서 병원장이 성과연봉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난 거죠. 병원은 생중계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온갖 얘기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욕먹을 걱정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 게 신뢰의 바탕이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 정리하지 않아도 박수로 다 정리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익용 위원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사전 인터뷰 하러 갔을 때 부인 분이랑 8살짜리 아드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 아들도 아빠가 노조 하고 있고, 위원장인 것을 아나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이: 설명은 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데리고 오면. 아빠 사무실이 제일 크고 혼자 있다고 하죠.

사: 학생 때 놀기 좋아하고, 학생 때 학점이 선동열 방어울이고, 흑역사도 많다고 하시고. 학생운동도 싫어하셨다고 하던데, 왜 그러셨어요?

이: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접하지 못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적으로 보면, 집회 행사 지나가면 불편함 많이 느끼셨을 텐데. 밤새 술을 많이 먹고 친구 자취방에서 자다가 차를 몰고 집에 가는데 집회를 해서 차를 막았어요. 그래서 똥을 쌀 뻔 했거든요.

일상적으로 느끼기에 노조와 관련해서 여러 장면들이 제가 볼 땐 좋지 않게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노조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같은 감정이었어요. 노조를 하면서 보험보다 낮구나. 조합비를 0.1%만 내도 임금을 3%씩 올려주고. 보험보다 훨씬 낮잖아요.

사: 노조도 그렇게 싫으셨어요? 학생운동 싫어하신 것처럼?

이: 처음에는 싫어했죠. 제가 입사하고 나서 노조 형님들 찾아오면, 노조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했죠. 저도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파업을 했는데. 그 때 직권중재 시절이라 파업을 하면 정부에서 직권으로 파업을 못하게 했거든요. 지노위도 3일은 합법 파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불법 파업으로 만들 거라고 했는데. 3일 지나고 모든 조합원이 강당에 모여서 들어가자 말자 토론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많은 선배들이 들어가자, 징계 해고 불편한데 빨리 들어가자 그러는 거죠. 노조도 싫고, 파업도 싫고 입사 3년차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파업 가야한다고 말했던 선배들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열을 받았죠. 전쟁터에서 장군이 돌격 하는데, 10명 중에 5명은 돌격하고 5명은 뒤로 빠지면 그 5명은 총알받이로 죽는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때 박수 받고 그래 가자고 했음. 물론 파업은 실제로 접었어요. 그 때 선배들이 저를 보고 꼬셔보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덜컥 노조를 시작하게 됐죠.

사: 서울대병원 분회나 부산지하철 노조는 87년, 88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노조거든요. 리더쉽이 세대교체가 된 것이죠. 전임 위원장 분과 기수 차이가 많이 나신다고 들었는데, 젊으신 분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선배들이랑 심하게 싸운 적도 있나요?

이: 많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동지 말씀처럼 노조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나 직책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평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잘 할 것이냐로 가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싸우는 편이고. 노조 운영함에 있어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선배들께서 저보고 많이 비판하는 게 자본가 스타일로 하지 말라. 교육 같은 거 좋은 강당 빌려서 하면, 옛날 선배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내용이 중요한데, 선배들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 노동운동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왜 너는 노조와 관계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입사하는 분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 데리고 와서 이야기 들려줘도 노조를 안 할 것 같았어요. 옷 물들이듯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빨간색으로 물들이려면 여러 번 담금질해야 하는 것처럼. 의외로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나가면서 그런 부분 많이 다뤘어요.

사: 제가 만나 뵈기 전에 사람들이 부산지하철 줄여서 부지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부지 부지’ 하는 거예요?

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과 소셜네트워크에 광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렇

게 오면, 동영상을 찍어서 말 잘 한 것만 편집을 해요. 제가 강남 아파트 거품처럼 고평가됐다. 일반 노조와 똑같이 하고, 다만 느꼈던 것을 자주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그게 관심을 받았어요. 오랜 선배들의 토대 위에서 제가 한 거지,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현재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시 위원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저희 조합원들 성과급 다 걸어서 똑같이 가져가게 하고. 그렇게 노조가 운영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들을 저는 밖에 나와서 떠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냐 하고. 지금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부지라기보다는. 많은 노조가 그렇게 하는데, 책처럼 누군가가 알려줘야 하는데. 경영자들은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경영 평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한다고 하고. 실제로 노조 활동가들은 자기가 잘 하고 있는 것 잘 안 알려내거든요. 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내고, 노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다음에 노조하시는 분들은 더 낮게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거품이 끼지 않았을까?

사: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성기가 언제인 것 같냐고 질문했을 때 지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기억나요. 과거는 알아야 하지만, 과거에 답이 있는 것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사전인터뷰 때 해주셨는데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찬의 대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노조 지회 생긴 다음부터 대의원, 분회장 다시 대의원 이렇게 골고루 하셨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 싸움을 많이 하시거나 하지 않나요?

정: 제가 13년도 2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5개월 정도 있다가 13년도 7월 달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신혼 때였죠. 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라, 제가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알 수 있을 텐데, 13년도 14년도 할 때는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인가 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면 그 때 무슨 생각했는지 꼭 한 번 물어볼게요.

사: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안 좋은 일이라고 표현한 게 최근에 해고당하신 것을 말한 건데. 어이없는 이유로 해고당하셨잖아요. 왜 해고 당하셨는지와, 기분이 어떠셨는지 얘기해주시겠어요?

정: 어이가 없죠. 일단 해고 사유를 보면,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게 있는데 그 때 사장 욕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벌금이 70만원 나온 게 첫 번째 사유고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임금체계를 보면 건당 수수료제라고 해서 기본급이 없고요. 한 건당 얼마씩 받는 체계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측한테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저희가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때 당시 저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임금체계 개선 위원회를 진행하며, 임금 개선하기 위해 사측과 논의하는데, 각 분회별로 임금 서류를 사측에서 받으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 영등포 사장하고 임금 서류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사장님이 피하시길래, 팔을 잡았더니 고소를 하셔서. 그래서 2가지 사유를 가지고 해고했고요, 지노위에 8월 16일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졌어요. 그래서 중노위를 준비하고 있

습니다.

사: 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안했는데...

정: 그렇죠. 영등포 센터 같은 경우,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와보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비조합원이 조합원을 몽둥이로 뒤에서 폭행해서, 3개월 정도 저희 조합원이 일을 못했었습니다. 그 때도 사측은 때린 비조합원을 옹호하며 징계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등포 센터 앞에서 수많은 집회를 했고, 결국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시다.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고 처분이 좀... 제가 해고라는 통지서를 3번 받았거든요. 한 번은 처음에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시킨다고 하고, 2번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를 1년 정도 안 내보냈어요. 1년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이전에 있던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를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또 열어서 또 해고해서 결국 해고당했기 때문에. 이걸 문제가 있고,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중노위에서는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 초기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도 주목을 많이 받다보니 제가 놀리는 말로 다들 왕자병 걸렸다는 말도 많이 했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서 주목을 많이 받은 걸까요?

정: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에 금속노조 투쟁하는 것을 밖에서 보면 고공농성 투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올라간다든지, 매달린다든지. 그런 투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경우 즐거운 투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2017년도도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광화문 일대 가보시면 '따릉이'라고 아시죠? 전국에서 올라온 30명의 조합원이 따릉이를 타고 돌아다니고, 광장에서 춤을 추고, 머리에다가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두르고. 그런 즐거운 투쟁들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투쟁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투쟁들 진행하면서 저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 한 잔 합시다라는 콘서트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하는데, 저번 주에 패널로 오신 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노조 활동하는 것 보면서 이렇게 무식한 투쟁을 하는 지회는 처음 봤고. 이 무식한 투쟁을 해내는 조합원들이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국에 조합원들이 흩어져 있어요. 한 군데 있지 않아요. 서로 모일 시간도 없고, 모이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요. 버스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30명씩 올라와서 10주차... 30명씩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3박 4일 동안 올라와서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무식한 투쟁인 줄 몰랐어요.

사: 똑똑한 것이죠. 다 같이 올라오기 힘드니까. 다음은 한샘 부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회사에서 별명이 쌤답이셨다고. 지금 별명은 뭔가요?

한: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은 자비로운 쌤답이 됐고요. 이게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쌤답이라는 표현 자체가 좋은 표현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성격이 극단을 달리는 스타일이라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딱딱 말해주고. 성격도 급한 편이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 일하는 사이에서도 아니다 싶으면 얘기를 바로바로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때문에 다른 팀원들과 살짝 마찰이 있었는데. 그 때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온화해져요. 그 때 같이 술 먹던 분이 쌤답은 쌤답인데 자비로워졌구나! 해주셔서, 자비로운 쌤답이 됐습니다.

사: 사실 뵙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 사업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술도 좋아하신다는 얘기도 들어서 처음 만났을 때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어땠는지 얘기를 하시면 무서우셨던 것 같아서 놀랐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지금 간부시잖아요, 여성부장이신데. 유일한 여성간부시기도 하고. 어떤 간부이신지가 궁금해요.

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첫 인상을 봐도 좀 그래 보이죠? 편안하게 대하시는 분은 100분 중 2분밖에 안돼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싸가지 없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머리부터도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질문이 뭐였죠? 아 어떤 간부인지. 이게 사전에 준비가 됐는데도, 말하다 보니 까먹네요. 제가 좋은 거 나쁜 걸로 따지자면 좋은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 쟁의권 나오기 전에 저희 팀에서 저한테 불만 같은 게 있던 조합원들이. 예상은 했는데 술 한 잔 하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올 게 왔구나.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을 몇 병 걸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때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쌍욕도 하고. 어떻게 너를 믿고 우리가 갈 수 있냐. 너도 사측의 편이지 않았냐. 네가 갑자기 노조를 하고. 사측의 편이라는 말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측의 편이라기보다는 제가 회사 내에서. 오래 됐거든요 입사한지. 자꾸 뭘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너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아라, 하면서. 그런 직책을 갖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마찰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잘 풀었어요. 저한테 욕을 하던 조합원이 엄청 잘해요. 왔냐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저는 좋은 간부인 것 같아요.

사: 2017년이 노조를 만드신 해잖아요, 앞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한: 저를 보면 즐겁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금속 붙어서 쟁쟁 부딪히고. 그런 걸 저도 생각했었어요. 고리타분하고, 금속이라고 하면 가스통 들고 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겪어보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밌고. 물론 힘들 때도 있는데, 삼성과 마찬가지로 미키마우스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하고 계시잖아요. 속은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하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루하루 새롭고, 저희는 또 신생이잖아요. 여러 군대를 다녀보려고 친구도 만들고 하는데. 하루하루가 되게 새로워요. 아직은 힘들다기보다는 재

밧어요.

사: 제가 사전인터뷰 할 때 기억에 남았던 말은, 처음 하는 사람은 노조 만들고 하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내가 힘든 게 좋다고 해요. 그걸 내가 해나가는 게.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한 분씩 얘기를 들어봤는데,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 공통질문

사: 다음으로는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에게 노조가 필요해 책을 미리 드렸고, 다 읽어보셨는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는지를 4분 모두에게 듣고 싶어요. 북 콘서트니까요.

박: 다른 노조의 얘기는, 저도 노조하고 있어서 아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주노동자 얘기는 잘 몰랐던 것 같고요. 힘들게 싸우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 분에게. 이주노동자 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다 이거인데, ‘한국에 오셔서 돈 많이 버셨어요?’ 이거였는데. 다르게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무엇을 남겨두고 간다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대답 하나면, 내 나이, 머리카락, 젊었을 때 얼굴, 나의 시간을 한국에 주고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노동자로서 자본주의에서 노동한다는 게 착취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노동하고 가면 우리나라에서 착취되는 것인데. 많이 벌어가냐, 여기 와서 돈 많이 벌어가냐 좋지 않냐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착취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게, 이 책을 보고 그 부분이 계속 와 닿았습니다.

이: 작년에 저희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했고, 그 때 저희 부모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파파이스에 출현하고 나서, 동생이 집에 가서 형님이 나왔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아들이 대견하고 말을 잘 하니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때 폐북에 올려서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너에겐 노조가 필요해》 책 보니까 어머니가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노조를 하는데 아들에게 이것을 해도 되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저도 얼마 전에 해고됐다가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단 승소를 했어요. 가족들이 느끼는, 그 이해해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구나 많이 느꼈고. 철도 노조가 파업했을 때도 가족들이 파업을 응원해준 게 큰 힘이 됐잖아요. 노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의 동생들. 제 동생도 비정규직이거든요. 아파트에서 일하는데. 어찌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노조를 하는 게 자기가 속한 노조만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노조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해야 할 분이 보고 나서 노조를 하시면 그 때 이랬는데 하시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만도헬라 동지들 할 때 저희랑 정말 닮았더라고요. 원청에서 업무지시하고, 사람 같지 않게 대하고. 업무 강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불법파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한테 지금까지도 얼마나 악랄하게 대하는지 자본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제가 지금 살짝 당황한 게, 저도 이주노동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확 나와 버려서. 머리를 지금 계속 굴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 동네에 이주 노동자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그 분들 엄청 친절하거든요. 친절하기도 한데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안지는 얼마 안됐는데 이주노조 박진우 동지와 술 먹다가 친해져서. 그래서 내일도 가거든요, 제가 홍보해드리는 건가요? 내일 보신각에서 있는데. 저도 이주노동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 이 책이 주변에 선물하기가 좋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 여행을 갔을 때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나서 친해진 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분이 나중에 카톡이 온 게, 이주노동자 얘기가 제일 감명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우 동지. 이주노조 얘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생각하게 하나 봐요.

## 상호질문

사: 다음으로는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드려보려고 해요. 서로의 인터뷰를 미리 읽어보고 오셨거든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고, 궁금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읽으면서 느꼈던 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먼저 한샘 부장님부터 누구에게 궁금하신가요?

한: 저는 부산 지하철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얼마 안됐고. 조합원도 임원 간부진도 마찬가지로. 부딪히는 게 다 처음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게 옳은 판단인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기도 한데. 그 기사에서 보니까 나는 바꿀 거야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새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토대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럴 때 선배 분들하고 많이 부딪혔을 거고, 그럴 때마다 어떤 과정으로 그걸 풀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말씀대로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도 많고. 교육 같은 것도 제가 처음 위원장 될 때 공약에 있던 내용이에요. 대의원대회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공약이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하고 나니 거기 계신 분들이 하고 나서 참 좋았다고 했어요.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니 현직 간부들이 난리 났어요. 또 2박 3일 하나. 대의원들이 바뀌지 않았냐, 안 받은 사람만 가자고 했는데. 평가가 좋게 남았었는데, 그 때 위원장

한테 세뇌당해서 그랬다. 지금 돌이켜보니 절대 하면 안 된다. 교육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상집에서 몇 시간 동안 설득하고. 또 위원장 비싼 호텔가서 돈 몇 천 만원 써가며 교육을 해야 하느냐. 돈 많이 쓰는 위원장 문제 있다고 비판도 받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교육비를 공개했죠. 우리 노래방이랑 술 먹으러 엄청 다니거든요. 사업비 반만 술값인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 술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수련회 갈 때마다 20~30만원씩 드는데, 이 교육비 해 봐야 1년에 30만원밖에 안 든다. 왜 안 가려고 하는 거냐. 또 정파적으로 볼 때는 너희 집행부가 세뇌시키려고 너희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당신이 원하는 간사를 부르라고 하고. 4년 동안 억지로 끌고 가서, 잘 되진 않았어요. 힘들었던 것은 맞아요. 대신 그런 건 있었어요. 교육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노조도 회사랑 똑같아서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사업은 거의 다. 제가 설문조사를 하자고 하니깐. 그 설문조사 수거해서 다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할 거냐. 내가 하겠다. 이틀 동안 엑셀에다가 집어 넣고. 다툼 정말 많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쪽 해야 한다. 마음먹은 것은 어떻게든 설득하자. 다양한 방법 찾았고, 설득해서 하고. 선배한테 했던 말이, 후배들 해보고 싶는데 해보지도 않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한 사업이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해 봐야 더 나은 사업 기획할 것이냐. 도전하는 것들 새롭게 하는 것들. 설득에 설득을 거쳐서 여기까지 했네요. 뒤에서 술 먹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인격적 모욕도 받고. 노조가 선거 통해 당선되기에, 49%의 반대파가 항상 있어요. 그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 많은 위원장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나가고, 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해결됐는데, 요점은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분회장님이 열심히 하셨으니, 분회장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거든요. 연속 2번 한 것 정말 후회했어요. 나오지 말 걸 왜 나와서. 근데 또 분회장으로 나오시지 않고 더 힘든 사무국장을 맡게 됐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다가 그랬는지.

박: 어떤 마음을 먹고 맡은 것은 아니고요.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 했어요. 다음 집행부가 미안하다고 저한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대표를 하고 나서는 열심히 했고. 끝나고 나서 좀 쉬고. 다음번에 다시 나오거나~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분회장 하고 나서 사무국장 하는 게. 제가 분회장 다음에 사무국장 하는 게 이렇게 별로일 줄 몰랐어요. 대표자들이 다음번에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안 하던 것들은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국장 하며 그래도 좋은 것은 서울대병원분회 대표자로서 하지 못했던 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책하고 연결시키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았고. 비정규직 투쟁은 공공기관 정규직의 투쟁. 물론 그게 안 힘들지는 않지만. 정말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우리가 지역 지부기 때문에 요즘에 가입문의가 많이 와요. 하청도 많이 오고. 직접 찾아오고. 정규직화가 발표되기 전에도 외부 1차 의료기관, 압구정에 가면 무슨 라식 전문병원 제법 크잖아요. 직원 수 50~60명 되는. 그런 곳에서 가입 문의가 옵니다. 그럴 때 너무 좋다 해봅시다 하면 되는데. 제목이 '노조가 필요해'잖아요. 노조가 필요한데,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할 때

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압구정에 안과 한 군데 노조를 못 만들었어요. 노조를 만들면 잘 될 거다, 지킬 수 있을 거다 말해야 하는데, 보니까 노조 만들면 다 잘릴 것 같아요. 폐업을 해도 되고, 이미 기간제여서 자르고 바뀌도 아무 상관없고. 1차 의료기관 노조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거기에 민주노총, 그것도 서울대병원 분회 있는 서울지역 지부에 가입했다고 하면. 의사 2명인 병원인데 노조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못 만들었어요. 너에게 노조가 필요한데, 노조하세요라고 말 못하는 상황이 있구나. 기다려봅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대병원 노조의 대표로서 느꼈던 경험 말고도, 몰랐던 것을 느끼고 있고.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진짜 원하는 곳도 안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벽을 느꼈어요. 민주노총에서도 그런 갈망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작년 촛불 때 노조가 우후죽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철없는 시도로 들고 나간 거예요. 촛불 나갔다가 노조 만든 회사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명의 없이 회사원처럼 들고 나갔는데. 이게 난리가 났죠, 사진이 찍혀서 민주노총에 올라가서. 다들 그 사진 보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마침 그날 전국 100만이 됐던 집회였는데, 민주노총 선전실의 누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난리가 났죠. 빨리 이 사람 찾으라고 하고. 결국 찾아서 왔더니, 의료연대에서 한 것이고. 장난을 쳐도 정도껏 해야지 얘기가 나오고. 그 깃발 찾으러 그 수십 만 명 인파 찾으러 올 정도로 새로운 노조는 그만큼 소중하고 필요한데. 그 새로운 노조 하겠다고 왔을 때 좀 기다려봅시다 하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걸 지역지부 비정규직 하면서 몇 개월 안됐지만 겪게 됐고. 분회장 뒤에 사무국장 하는 건 굉장히 큰 잘못이었던 것 같은데, 실수라도 배우고 느끼는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공기관의 투쟁이 아닌, 진짜 어떻게 보면 막장으로 갈 수 있는 싸움. 서울대병원 노조하면서도 막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진짜 이건 내가 죽을 수 있는 막장이구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투쟁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의원님께, 그런 벽이 느껴질 텐데. 공공기관과 자본은 다르잖아요. 그런 투쟁을 할 때는 희망을 찾거나, 공포를 뛰어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 삼성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기업이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기업에서 노조를 만들었죠. 14년도에 노조 만들고서, 막 가입하니 1500명 정도의 조합원이 모였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측이 탄압이 들어왔어요. 창립총회 할 때도, 그 날 토요일이었나. 그 날 일하면 15만원 주겠다 20만원 주겠다 한 적이 없었는데. 전국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5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20만원씩 뿌리면 돈이 얼마인지 한 번 생각해보시면. 노조 만들고서 계속 그런 식으로 회유가 들어와요. 가입했다가 바로 탈퇴도 하죠. 사측의 탄압을 못 이기고. 최종범 열사가 노조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위기를 넘겼어요. 그러고 몇 개월 있다가, 사측에서 탄압이 센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삼성전자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AS 센터를 없앴다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원청 직원들을 투입하는 것. 원청 직원들을 투입해서 그 쪽 AS를 담당하게끔 하고, 노조에 가입 안된 주변 센터들을 옮겨서 AS 업무 진행하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탄압해요. 일반적인 기업이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탄압해서 조합원들 죽여 나가죠. 본인들이 원하는 숫자로 줄이거

나, 아니면 아예 없애려고 탄압을 하면서 수많은 징계를 하고. 센터를 없애고. 뒤에서 회유를 하고. 조합원들을 빼나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열사가 염호석 열사. 열사가 나타나며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계속 징계하고, 해고도 시키고, 폐업도 하면서 끊임없이 조합원 수를 줄이려고 해요. 제가 느끼는 삼성은 본인들이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금속노조에 있는 다른 사업장들. 하이디스에 비하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동지들이 얘기하는 게, 삼성은 어쨌든. 저희는 외칠 데는 있잖아요. 삼성이 도망갈 것 같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금속노조 내에 있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회사를 없애고 대만으로 도망가고. 공장 자체를 없애버리고 하는 것들이.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일반 사업장 분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런 모습 보면서 그나마 우리는 좀 낫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만도 헬라 동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조 만들고 나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느꼈고. 기분 좋은 순간들이 처음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만도헬라 동지들은 노조 만들고, 한샘 동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한: 제일 처음으로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 저희가 일을 진짜. 저희는 몰랐어요. 살인적인 업무시간 했는데. 그걸 다 묵묵히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일요일에 특근 계획이 잡혔고, 금요일 밤에 문자가 와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갔어요 또. 실제로. 근데 그 때 당시 조합 설립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응~ 특근은 자율이니까 안 나가도 돼. 하청업체에서 관리자들이 물어봐요. 당연히 나올 거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가 아니라. 이 날 뭐 있으니 나와야지 하고 그냥 가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조합을 설립하고 나니까, 안 나올 건데. 특근 자율이라며. 안 나올 거야. 약간 어깨 뽕. 특근이나 잔업은 우리의 선택, 그게 당연한 것. 이런 인식이 한 조합원 한 조합원에게 박혀지는 게 보일 때. 그 때가 그랬었고. 2번째는 저희가 배식을 받으려고 식당에 줄을 서는데. 저희 뒤에 이거 있거든요. 등 자보가 있는데. 앞에서 줄 서 있다가,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짹 서서 밥 뜨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식당에서 박수쳤어요. 엄청 멋있어서. 이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임원 간부진 조끼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일반 조합원들이 막 물어봤어요. 우리는 조끼 언제 나와, 입고 싶은데. 질릴 때까지 입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입고 짹 서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이에요. 제일 기억에 남아요.

## 청중질문

사: 청중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손들어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세요.

청중1: 부지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연차 높은 선배 중에 49%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분들도 얘기해주셔도 되는데. 노조 활동하다 보면. 저는 전임으로 내

려운 지 얼마 안됐는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저렇게 행동하는 건 예의가 없고,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게 노조가 아니면 그 사람을 왕따 시킨다든가, 뒷담화 하고 욕한다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할 텐데. 근데 노조고 간부니까, 부적절한 존재를 어떻게 처치하시는지. 어떻게 문제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실제로 잘 들어줄 수밖에 없고. 대의원 대회에서 이상한 질문 계속하는데. 곳곳하게 참고, 한 번 화나서 정회를 한 적 있습니다. 책상을 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기 인생의 대나무숲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조를 하면 노조 간부들만 만나잖아요. 저희 마누라가 술 먹고 와서 사람 욕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싫은 사람 욕을 엄청 나게 한다고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순간 돌아서 돌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노조와 관계없는 사람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니다. 노조 간부를 맡는다는 것, 노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접대하는 거다. 부르면 나가서 술 마시고, 우리의 약을 또 팔아야 하잖아요. 잘 들어줄 수밖에 없다. 좋은 대나무숲을 찾으시기를.

청중2: 아까 서울대 분회장님 말씀하셨을 때,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신뢰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분회장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박: 그 스트레스가 조합원한테도 오지만, 진짜 살면서 별로 안 싸워본 것 같아요. 안 싸워본 게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별로 애착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 저는 뭐가 스트레스였냐면, 적을 계속 만드는 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어느 시점 지나니까. 병원 안에서도 물론 조합원들과 함께 했지만, 내가 잘라낸 관리자들... 그 사람이 우리가 처단해야 할 큰 적도 아니에요. 중간 관리자인데. 그 사람은 칼을 갈면서 다니겠죠. 노조가 징벌해야 할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정말 많아요. 계속 많아지거든요. 성추행, 성희롱 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지는 게 저는 스트레스였거든요. 회사랑 싸우다보면 완전히 저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 진짜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밤길 조심해라. 그게 큰 적이면 밤길 조심하든 뭘 하든 하면 되는데. 작은 적들이 많아지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아까 대나무 숲 얘기에 공감되는 게 있어요. 그 대나무 숲에서 네가 만드는 적보다, 네가 돕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 괜찮다. 그 업보는 다 사라지고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명언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저의 경험으로는 좋은 선배 만나는 게 중요했어요. 요즈음에 젊은 노조 활동가가 없잖아요. 감동을 주는 선배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학교 다닐 때부터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젊음이 정의감, 도덕성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그 때 선배들을 만났고, 선배들의 얘기가 세련되고 좋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멋있고, 이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나와서 노조 간부가 그 선배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기 가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저 선배 너무 멋있고 나 저거 하고 싶어 만들게 하는 선배가 있는가. 저는 다행히 운 좋게 만났거든요. 그 선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나무 숲도 됩니다. 조합원 앞에서 당당하고 잘 해야 하는데, 선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게 됐고 온갖 힘든 것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존재가 대학 때 만난, 나를 이 판으로 이끈 선배가 직장으로 노조 선배가 됐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운인데.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청중3: 질문 2가지인데요,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투쟁을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하고.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요. 2번째는 서울대병원 분회가 괜찮은 간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하는지, 아니면 본인만의 후배 발굴 노하우가 있는지.

정: 사실 제가 지금은 투쟁계획을 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요. 따름이는 조합원들이 건의한 것. 이것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 일반적인 계획의 경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집행부 동지들이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석님?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 한 잔 합시다”는 박성용 수석부지회장님이 개사를 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재주들이 많으세요. 주로 조합원들이 지나가며 얘기하는 것들을 진행하고요. 이번 상경단은, 끝나고 내려갈 때 다음 주에 뭐했으면 좋겠는지 적으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또 그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음 주를 진행하고. 다음 주는 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지금 10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젊은 간부 많이 생긴 거 얘기하시는 것이죠? 전임자 공급이 되는 것? 괜찮은 간부~ 그 전에는 진짜 간부들이 안 바뀌었어요. 오래 했던 간부 그대로 했는데, 바뀌게 된 것은 교섭에 직접 들어오게 돼서 간부 지원하게 된 사람이 많았어요. 노조는 노자가 만나는 전선이 파업으로 물론 가야되겠지만 그 전에 교섭이잖아요. 마주 보고 앉아서 적을 없앤다 뿐만이 아니라. 적과의 관계 맺기. 교섭은 그거잖아요. 재한테 뭔가 뺏겨내야 하는데, 그 교섭 상황에 직접 참여하는 게 우리 생각보다 조합원들한테 엄청 큰 경험인 거예요. 그 이후에 나도 노조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필하는 것은, 노조 집단의 인간관계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전임자들끼리 힘들어보여도 재밌나봐, 좋은가봐. 직장관계에서의 인간관계도 좋을 수 있죠. 근데 재네는 우리 부서 친한 것과 다른 것 같아. 나 저기 끼고 싶어. 이런 걸 만들어줘야 하고 보여줘야 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자가 있어야 좋은 사람 고를 수 있잖아요. 진짜 할 사람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지원해도 쓸 수밖에 없는데. 매력적인 노조가 돼야 좋은 훌륭한 간부 영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마무리 발언

사: 끝낼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분들께서 못했던 말씀 있으시면 30초 내로 해주 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저는 항상 이런 포럼이나 연대발언을 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가요.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귀가 열려있었 어요.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계속 생각한 게 내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간부들 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영키고 있는데, 이걸 잘 풀어나가 서 정말 매력적이고 멋있고. 사람들이 재네 정말 투쟁 잘하는구나라고 느낄만한 조합을, 물론 제 혼자만의 투쟁으로 안 되겠지만 정말 의욕이 솟아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밑거름, 자양분이 된 것 같아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금 임협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재용 재판이에요. 재판 했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올라오는 상경단들도 그것에 맞춰서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많이 봐주시고요. 저 해고된 것 때문에 걱정돼서, 지노위에서 저서 교섭단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도망가지 않 나 잡으려고 오신 것 같은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의 해고를 막아주실 집행부 분 들 고생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하고 책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일상의 얘기까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책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 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노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려면, 노조 안 할 때보다 노조 할 때 더 좋아해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 사람들보다 스스로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아요. 노동조합 하는 간부들 굉장 히 힘들고 맨날 힘들고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행복해야 하고, 자신들의 행복 을 찾아서. 노조 하나까 좋은가봐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공 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황에 놓여서, 정규직 노동조합이 도전을 받는 상황으로 느껴지 거든요. 비정규직 철폐라고 외쳤던 게,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위기의 순간인 것 같은데. 정규직의 허락을 받고 정규직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렇게 노조가 비춰지면, 노조 필요하다고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노조 하는 사람들이 바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 시간 반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고개 끄덕이고 웃기도 많이 웃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보따리 풀어준 4분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 막으로 박수 한 번 보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